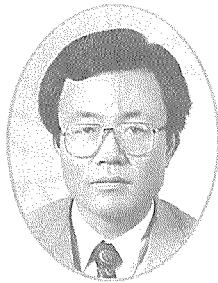


멋스러움을 간직한 길모퉁이의 주유소



양 승 현
〈서울신문 사회부기자〉

프

랑스의 여류작가인 프랑스와즈 사강의 「길모퉁이의 카페」라는 소설이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생 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접했던 책 가운데 하나다. 책을 읽은지 벌써 20년이 지나 세세한 내용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남녀 사이의 애정을 정밀하게 다루었던 것 같다.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솔직히 고백하면 제목이 좋아서였다. 어딘지 낭만적인 분위기가 물씬하고 사춘기를 갓 지난 나에게 그럴듯한 감동을 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사게 됐다.

휘발유나 경유, 등유를 파는 주유소도 길모퉁이에 자리하고 있는 곳이 더러 있다.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

휘발유를 넣으러 길 모퉁이에 있는 주유소를 찾게되면 나는 어김없이 이 책을 연상하게 된다. 「길모퉁이의 주유소」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주유소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지난 90년 10월 말. 항상 편한 느낌의 신문사 선배들로부터 낡은 노란색 스텔리승용차를 물려받

은 뒤부터다.

석유 보일러로 난방을 하는 집에서 살긴 했지만 주유소가 아닌 동네 가까운 등유판매소에서 항상 사다가 썼다.

선배에게 승용차를 거의 뺏다시피 물려받은 나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의 지금은 통상산업부에 흡수 통합된 동력자원부를 출입하고 있었다.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과천의 길목인 남태령 고개까지 간뒤 다시 합승택시로 청사까지 가야했던 나에게 그때 그 스텔라승용차는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정말 값진 귀중품(?) 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푹푹 찌는 한여름 낮이었는데 점심을 먹고 함께 동력 자원부를 출입하던 타사 동료를 태우고 가다 주유소에 들려 휘발유를 넣게 됐다. 남태령 고개 근처에 있던 주유소로 우연히도 길 모퉁이에 자리하고 있었다. 허름했지만 주유소치고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즈넉한 분위기였다.

주인인 할아버지의 정중한 인사와 친절할 주유, 조금도 부담없던 시설... 아마 모르긴 해도 뭔가 특별한 의미를 찾고 있었던 당시 나의 정서에 이런 친절함이 겹쳐 그랬던 것 같다. 내가 너무 낭만적인 사조에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때 나는 사무실 옆에 서있던 자판기에서 커피까지 뽑아 마시며 이상야릇한 그 분위기를 즐겼다.

어찌보면 당시 나의 느낌은 역으

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의 주유소는 너무 획일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하다는 얘기도 된다. 도심의 줄부, 가짜 휘발유, 속여 팔기...

어째튼 그뒤부터 꼭 그 주유소에 서만 기름을 넣었다. 집에서 가깝기도 했지만 휴일에도 휘발유가 떨어지면 어김없이 그 집을 찾아 기름때 묻은 옷의 그 할아버지를 만났다. 마치 잊혀진 젊은 날의 애절한 추억의 증인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할아버지는 낮이 조금 익자 뒷좌석에 앉은 우리 아이들에게 까지「좋은데 가는 모양이다」고 말을 건넸다.

그 때는 지금처럼「얼마를 넣으면 무슨 상품을 준다」는 식의 사은권이 나 조미료·고무장갑과 같은 선물도 없었다. 그러니 그 주유소만을 고집한 것은 일종의 고질병(癖)과도 같은 나의 내적약속의 하나였던 셈이다.

새로 이사온 동네에서도 이 고질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주변에 5개 정도의 주유소가 있으나 그중에서 제일 허름한, 그러나 길 모퉁이에 있는 한 주유소를 항상 찾고 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남학생, 여학생으로 자주 바뀌고 어쩔 때는「3만원」했는데도「3만1천원」으로 맞춰놓거나 0.6ℓ를 부족하게 넣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웬지 그 주유소가 좋다. 다시 들리게되면 지난 번에 적게 넣은 ℓ만큼을 꼭 채워주고 전화 좀 쓰자고 하면 동전을 주며 밖에 있는 공중전화를 사용하라는 얘기를 안해서 더더욱 그렇다.

최근들어 거리제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유소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다. 모두들 첨단인 새 건물에다 갖가지 아이디어로 손님들을 끈다. 한결같이 옆 공간에는「오토피아」라고 이름붙여진 자동차 부속품 가게와 조그마한 정비소까지 두고있다. 이것도 유행인 모양이다. 내가 늘 기름을 넣던 그 주유소도 그 유행엔 예외가 아니다. 예전 건물을 헐고 지금 한창 공사중이다. 간판도 새로운 것으로 이미 바꿔 달아놓았다. 여전히 한편에서는 기름은 팔고 있으나 아직은 흥물인 채다. 어떤 모습으로 다가설지 무척 궁금하다.

그러나 걱정부터 앞선다. 새로 지은 주유소마다 걸은 번지레하고 개업하면 늘상하는 선물공세만 해냈지 내부적으로 바뀐게 없다. 아쉽게도 겉에서만 특징을 찾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편리하게 기름만 넣으면 됐지 무슨 특징이냐고 하면 뚜렷히 대꾸할 말은 없다. 그렇더라도 끝없이 계속되는 체증과 주차난 그리고 10부제다 뭐다해서 짜증나게 하는 게 요즘 교통 현실이다. 차가 오히려 짐스러운 지경이다.

새단장하는 우리「길모퉁이의 주유소」는 건물을 새로 짓는 만큼 새로 위졌으면 한다. 내가 붙여준 이름에 걸맞게 획일적이 아닌「길모퉁이」의 낭만과 개성을 지닌 조그마한 생활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